

"평창으로 캠핑 오드래요"...계방산오토캠핑장·자연휴양림 '인기'

✎ 신현태 | 📅 승인 2023.04.21

박현창 시설공단 이사장 "고객 서비스 만족에 최선"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계방산오토캠핑장과 평창자연휴양림의 이용고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방산 오토캠핑장.신현태

캠핑시즌을 맞아 평창 계방산오토캠핑장과 평창자연휴양림의 인기가 급상승이다.

평창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오토캠핑장과 봉평면 무이리 평창자연휴양림의 지난 2년간 이용객이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계방산오토캠핑장은 공단 출범 첫해인 지난 2021년 이용고객이 전년대비 1만467명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 1168명 늘어났다.

또 평창자연휴양림도 지난 2021년 이용고객이 전년대비 2041명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전년에 비해 3340명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용고객이 20%정도 증가추세다.

이용객 증가는 이들 시설이 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맡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용평면 노동리 해발 700m에 위치한 계방산오토캠핑장은 주변의 아름다운 계곡과 자연경관, 여름철 평균기온이 20℃ 정도로 열대야가 없는 기후에다 밤하늘의 별 관측에 최적지여서 전국 캠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공단은 지난해 최신 관광트렌드에 맞춰 차박캠핑장 조성하고 오토캠핑장, 카라반, 평상, 펜션 등 다양한 캠핑 구역을 확장정비하고 샤워장과 화장실, 실내 개수대 등 편의시설을 개선,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 평창자연휴양림

또 여름철 지역특산물인 옥수수과 감자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평창국제영화제 캠핑시네마, 산울림 악단의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 캠핑객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계방산오토캠핑장은 KCIA한국소비자산업평가 스포츠 레저 부문에서 2년연속 지역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봉평면 무이리 태기산 자락 해발 780m에 위치한 평창자연휴양림은 풍성한 수림과 청정자연 속에 조성한 휴식공간으로 태기산, 휘닉스평창과 인접해 등산객과 휴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공단은 휴양림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숙박시설 5동을 증축하고 주변경관 조성과 노후 시설개선 개선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 다양한 연령대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현창 공단 이사장은 “공단 출범과 동시에 위탁운영하는 관광시설의 고객 불편사항 개선과 시설 정비,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이용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보다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객과의 소통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한편 공단은 현재 계방산오토캠핑장, 평창자연휴양림, 대관령휴게소, 평창공설묘원, 광천선굴 어드벤처테마파크, 평창·진부장레식장, 평창행복주택,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방림면의 평창국민여가캠핑장을 6월 개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태